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8〉
원융국사 결응
(圓融國師 決凝; 964~1053) 下

종신토록 부석사 머물기를 발원

고려 전기 특히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서 고려가 동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르는 시기인 현종 시대 이후의 유명한 승려들은 대부분 부유한 호족 가문 출신이다. 결응스님 역시 그러한 출신 가문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스님의 어머니 방 씨는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해 남방환희세계의 교주인 보승여래불을 봉안하고 늘 기원했는데, 스님을 낳던 날에도 집안에서 도량법석을 펼쳐 스님들께 경을 강청하였다. 스님은 나이 12살에 용흥사에서 광굉(廣宏)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이듬해인 개보 8년 흥복사 관단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28세 때 선불장(選佛場, 승과시험장)에 나아가 선발됐고, 정종 때는 승통이 됐다. 다시 정종 10년(1044)에 왕사로 책봉됐다. 또 고향집을 절로 바꾸어서 머물렀는데, 임금이 화엄안국사(華嚴安國寺)라고 이름을 지어 내렸다. 1047년에 국사로 책봉된 스님은 거란 중희 10년(1044)부터 만년에 부석사에 주석하게 됐는데, 스님이 계신 동안 사부대중이 산림을 문으로 삼아 운집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대중들이 모였다고 한다.

스님은 종신(終身)토록 부석사에 머물 것을 발원했는데, 머무는 동안 〈화엄경〉을 간행해 부석사와 화엄안국사에 각각 봉안했다. 스님이 의상 화엄계의 직계 후손인 것은 부석사를 구산(舊山)으로 칭한 데서 알 수 있지만, 그 사상의 내용은 비문의 훼손으로 인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비명에서는 무량수전과 관련한 의상 스님과 제자의 문답을 특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스님의 신앙과 사상적 자세가 그것에 부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오직 아미타불의 불상만 봉안하고 좌우 보처도 없고 또 불당 앞에 영탑(影塔)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날 제자 중의 한 분이 묻자 의상 스님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호족 출신인 결응 스님 국사 올라
부석사 머무는 동안 〈화엄경〉 간행
의상 화엄계의 직계 후손

“스승인 지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승의 아미타불은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시방의 정토를 체(體)로 삼아 생멸상이 없기 때문이다’ 고 하셨다. 입법계품에 이르기를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로부터 관정과 수기를 받은 이가 법계에 충만하여 그들이 모두 보처(補處)와 보궐(補闕)이 되기 때문이다’ 고 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않은 까닭에 궐시(闕時)가 없으므로 좌우 보처를 모시지 않았으며, 영탑을 세우지 않은 것은 화엄일승의 깊은 종지를 나타낸 것이다.”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비명에는 이 구절에 이어서 지엄 스님이 화엄의 종취를 의상에게 전하고, 의상 스님 이후 원융 국사에게까지 전승됐음을 적기하고 있다. 스님의 신앙과 사상의 세계가 부석사를 본산으로 하는 의상계 화엄사상과 신앙에 고취돼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비문으로는 스님의 사상적 입각점이 의상계 화엄의 그것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스님이 이 시기 의상계 화엄을 지키는 대들보 역할을 했음을 보여줄뿐이다. 그러나 성종 대로부터 문종 대에 이르기까지 왕사나 국사로 활약한 승려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법화경〉적인 사고가 스님의 비명에 반영돼 있는 것은 흥미롭다. 곧 스님이 2~3살의 어린 나이라 아무것도 모를 때, 외조부의 집으로 가자고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여, 그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살던 집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고 말았다는 일화이다. 〈법화경〉에 의탁한 전형적인 설화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응 스님은 왕권과 호족지배층의 권력균형이 존재하던 고려 전기에, 초기부터 법화천태의 신앙과 사상을 통해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던 고려 왕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상계 화엄의 종취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님의 비명과 행적은 현종 대 이후 고려 왕실과 화엄종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로 생각된다. 이러한 왕실과 화엄종 간의 묘한 관계는 당시 귀족세력을 배경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던 법상종의 대두와도 전혀 연관이 없는 사태는 아니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5
시종(時宗)의 조사 잇펜 상인(一遍上人) ㊦

서민과 하층민을 중시한 인물

처와 딸, 제자를 데리고 염불포교 유행(遊行)에 나선 잇펜은 나무아미타불이 쓰인 패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한 승려가 “신심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패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번뇌가 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6세 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극락정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일컬어지던 와카야마현의 쿠마노(熊野) 신사에서 두문불출 정진했다.

백일 정진 중 중생의 정토왕생은 신(信)이나 불신(不信), 정(淨)이나 부정(不淨)에 관계없이 아미타불의 명호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그 명호패를 나눠주라는 계시를 얻는다.

그는 나무아미타불 다음에 ‘결정왕생 육십만인(決定往生六十萬人)’ 이라고 쓴 패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십계의 사물은 모두 평등하며 명호의 체내의 덕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든 자력행과 집착을 버리면 절대불이의 세계를 증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자야말로 사람 가운데 최상의 사람이며 진흙속의 연꽃이다.’

모든 것 아미타불에 맡기는
절대 타력신앙 확립하고
대중포교 위해 춤염불 개발

여기에서 유래한 잇펜이 그의 방호(房號)가 됐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미타불에게 맡긴다는 절대 타력신앙이 확립된 이 시기를 교단에서는 개종의 해로 하고 있다.

1297년에는 나가노현을 방문해 쿠야(空也)의 전례를 따라 춤염불[踊念佛]을 개최했다. 이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이후 잇펜이 방문한 곳에서는 반드시 춤염불이 행해지고 많은 서민들이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대중포교를 위해 판을 연 춤염불은 예능으로 발전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51세로 임종하기 직전 그는 가지고 있는 서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후에 제자들이 법문을 모아 〈반슈어록집(播州法語集)〉으로 정리했고, 일본 전역을 포교하기 위해 편력한 생애는 〈잇펜상인회전(一遍上人繪傳)〉과 〈유행상인연기회(遊行上人緣起繪)〉등에 그림과 글로 전해지고 있다.

〈잇펜상인회전(一遍上人繪傳)〉 제7권 춤염불의 모습, 국보

호넨(法然)에 의해 일본에 확립된 아미타 신앙은 말세 중생을 위한 이행도(易行道)로서의 염불행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정토신앙의 흐름 속에서 잇펜은 6자 명호 자체에 구제의 힘이 있다고 보고 오직 명호를 염하면 아미타불과 중생과 명호가 혼연일체가 된 그곳에 구원의 세계가 있다고 가르쳤다.

잇펜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명호패를 나눠줬으며 특히 하층의 민중을 중시했다. 격의 없이 나눠준 명호패는 민중들에게 아미타불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다. 북과 징 등을 두들기며 민중과 함께 한 춤염불은 인간의 모든 고뇌로부터 탈속적인 해방감을 만끽하게 함으로써 신앙에 대한 희열을 고취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기폭제가 됐다.

불법의 대의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유행한 16년은 잇펜 스스로가 불타의 행적을 닮으려는 무아 · 무소유의 실천행이자, 중생구제를 위한 무량한 대자비를 실천으로 일관한 삶이었다.

그는 기존의 대교단이 민중과 유리된 교학전개와 정쟁에 빠져들어 이전투구하는 것과는 달리 서민들이 사는 저자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잇펜은 교단을 조직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의 사후에 자연스럽게 해산된 집단을 그의 제자 타아(他阿)가 재편성했다. 현재는 나무아미타불 6자의 명호를 본존으로 하고 있으며, 4대 돈카이(呑海)에 의해 1325년 개산한 쇼죠코지(清淨光寺)를 본산으로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⑮

선종사의 한 페이지 장식한 ‘삼소굴 소식’

선종사(禪宗史)에서 선사(禪師)들 또는 선사와 재가 수행자 사이에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주고 받은 것은 많이 있어왔다. 단순히 안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 법거량(法擧量)을 한 것이다.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 선사의 〈심요(心要)〉와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 선사의 〈서장(書狀)〉 등은 서간문 형식으로 된 대표적인 법어집이다.

경봉 스님의 〈삼소굴 소식〉은 이러한 서간문 형식의 법어집으로 선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고 할 수 있다. 책의 첫 부분에 경허(鏡虛; 1849~1912) 선사가 장상사(張上舍) 거사와 김석두(金石頭) 거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유가 글에 이르기를 “군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서 만족을 느껴, 밖의 것을 기다리지 않음을 덕이라 한다”고 했으니 이 글은 평범한 이야기 같소. 그러나 불법을 배우는 이가 참고해 보건대 그 이치가 매우 긴요하고도 좋은 말입니다.

대개 생사와 열반, 범부와 성인, 선과 악 등의 일과 내지 참선, 주력, 기도, 염불 등의 수행이 밖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밖에도 시끄럽고 고요하다고 할 게 없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밖의 물질에 끄달림이 저 들판에 소나 염소와 같나니 하물며 생사와 재앙과 복을 따져 봄에 너무나 부자유스럽소.」

위와 같은 경허 스님의 말씀은 조사어록(祖師語錄)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내용으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는 고구정녕한 말씀인 것이다. 아마도 경봉 스님이 이런 편지를 간직하신 뜻도 좋은 지침으로 삼으시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조공(肇公)이 이르기를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교리배우는 곳의 불필요한 말이나 도리어 맛이 있어서 지적했소.

그러므로 고덕이 이르되 “당체가 의지할 데가 없음을 비추어 다하면 온몸이 대도에 합한다”고 했고 또 이르되 “거울을 쳐부수면 그대와 더불어 서로 보리라”고 했으니 대저 한 점 영대(靈臺)가 탁 트이어 깨끗이 한 티끌도 없고 꿰맨 흔적도 없는 본래 경지에 이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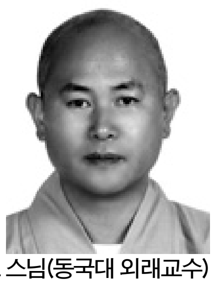
그곳에 이르면 다시 지루하게 자기와 또 바깥 것에 장식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그 자유라는 두 글자는 또한 부질없는 말이외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모두 ‘나’ 라는 생각 ‘나의 것’ 이라는 집착,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맞추게 하려고 하는데서 기인한다. 언제든지 이것이 문제지만 자유로운 소통이 있을 때나, 한 생각 비우게 되면 모두 풀어지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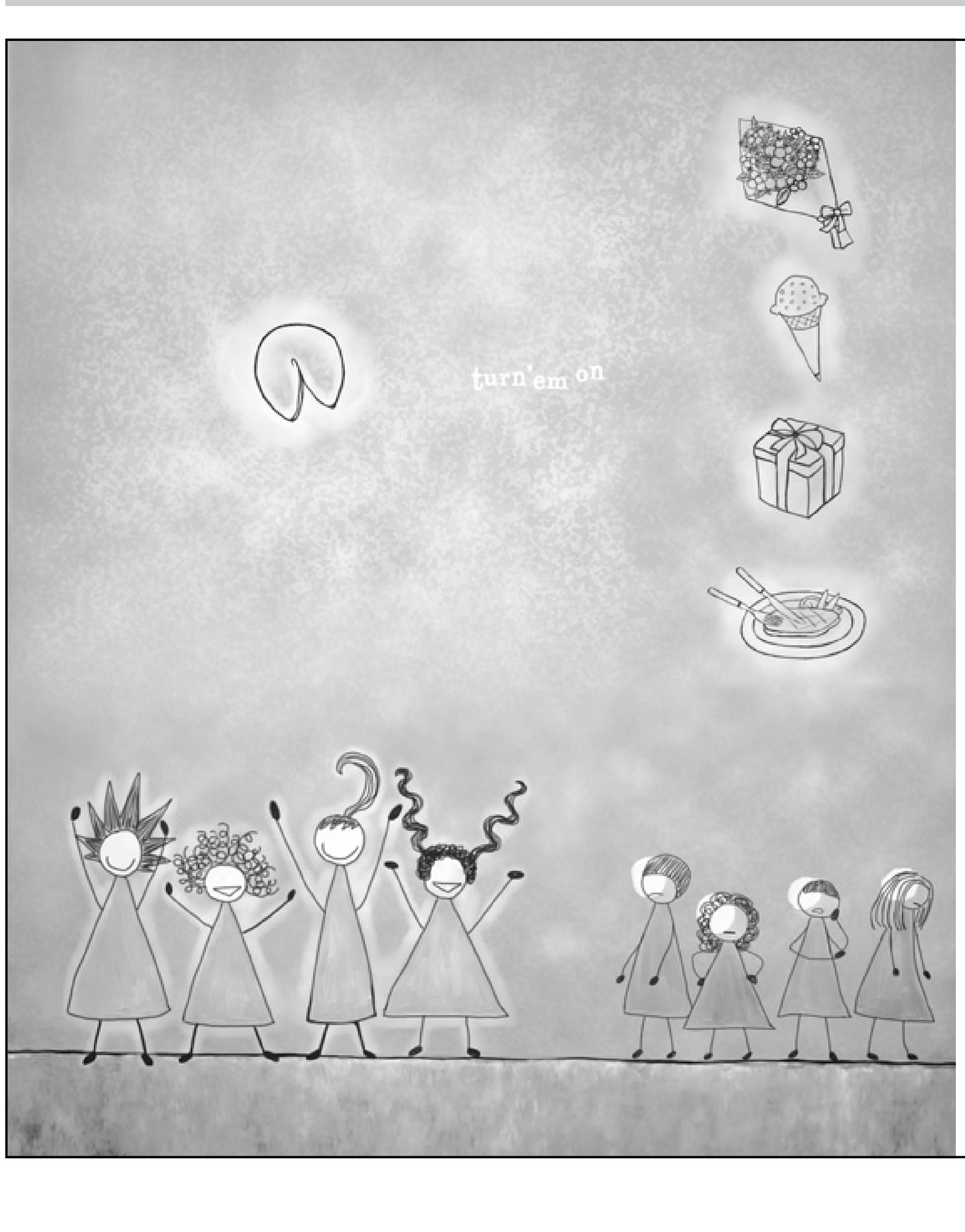
경허 스님이 김 거사와 장 거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공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고인이 이르기를 “지극히 이치를 연구함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으라”고 했으니 대저 불법을 배우는 이가 진실된 경지를 밟지 않고 문자와 분별지해(分別知解)로 따지니 이는 모두 업바람의 힘에 헤매는 것이라 마침내는 실패하고 마니 자기가 스스로 살림살이를 점검해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위 말씀은 마음공부는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야 되고, 문자를 분별해 알았다고 하는 알음알이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What is Buddha Cookie!!

법法 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